

IBKS Spot Comment

코스닥리서치

조은애

02) 6915-5689

goodkid@ibks.com

[지엔씨에너지]

해외에서 들려온 비상발전기 오더러시 소식

미국 비상발전기 기업 제네락, 아마존과 장기 공급계약 체결

미국 비상발전기 업체 제네락(NYSE:GNRC, 시가총액 122억달러)이 아마존에 데이터센터용 비상발전기 장기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전일 주가는 +18% 상승했다. 2027~2028년 초기 공급 규모는 24억달러이고, 최대 공급 규모는 80억달러까지 확대될 수 있는 계약이다. 동사는 2025년 매출 42억달러 중 주택용 비중이 54%로 가장 높았으나, 2026년부터 데이터센터용 신규수주가 급증하고 있다(그림 1). 이번 아마존과의 24억달러 계약을 포함하면 2026년 9월 현재 데이터센터용 비상발전기 수주잔고는 40억달러이고(그림 2), 이는 2026년초 수주잔고 4억달러의 10배 수준이다. 참고로, 동사의 블룸버그 컨센서스 기준 2026년 예상 매출은 49억달러(+17% yoy), 매출총이익률은 40%(+2%p yoy), 영업이익률은 14%(+7%p yoy) 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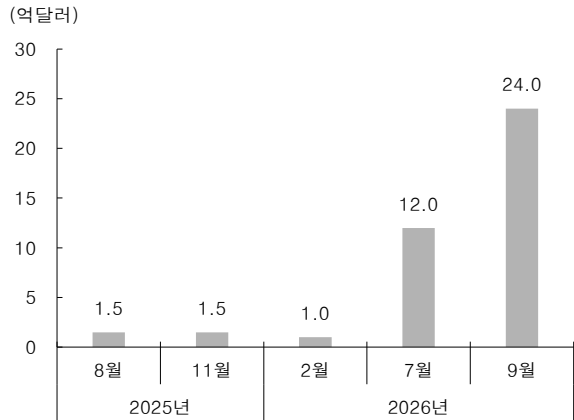
데이터센터 건설을 위해 비상발전기도 미리 선점해야 되는 상황

글로벌 AI 데이터센터 투자 확대로 GPU와 전력 인프라뿐만 아니라 비상발전기 수요도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특히, 하이퍼스케일러가 프로젝트별 단발성 발주를 넘어 장기간 비상발전기 공급물량을 선제적으로 확보하기 시작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제네락은 글로벌 대형 디젤 발전기의 공급 부족으로 생산 병목을 언급하고 있고, 이에 따라 고객사들의 발주 속도가 빨라지고, 계약 규모도 대형화되는 추세다. 제네락의 데이터센터용 비상발전기 신규수주는 2026년 연초 1억달러, 7월 12억달러, 9월 24억달러로 빠르게 확대되고 있다.

지엔씨에너지의 신규수주 성장에 대한 기대감을 높여도 될 시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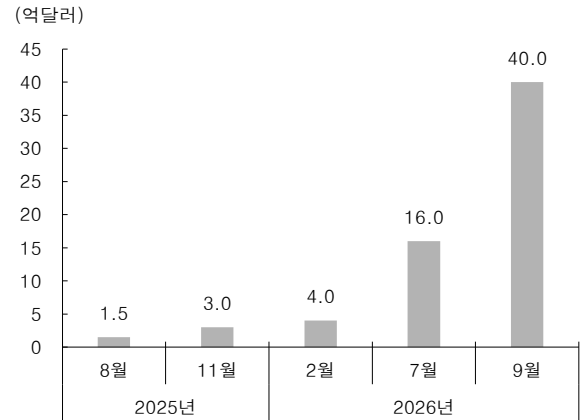
제네락과 아마존의 대형 계약은 글로벌 데이터센터용 비상발전기 공급 부족과 발주 대형화를 확인시켜주는 사례다. 국내에서도 대기업 주도의 AI데이터센터 사업 속도가 빨라지면서 대형 프로젝트 관련 발주는 2026년 하반기~2027년에 몰릴 것으로 예상된다. 지엔씨에너지의 2026년 상반기말 기준 비상발전기 수주잔고는 4,147억원이며, 7월 이후 현재까지 공시된 데이터센터용 비상발전기 신규 수주만 6건, 2,541억원 규모이다. 2029년까지 예정된 8.4GW 프로젝트만으로도 매년 1조원 이상의 수주 시장이 열리기 때문에, 지엔씨에너지의 신규수주와 증설, 그리고 수익성 상승이라는 실적 관련 호재에 대한 기대감을 높여도 될 시점이라고 판단한다.

그림 1. 제네락 데이터센터용 비상발전기 신규수주



자료: 제네락, IBK투자증권

그림 2. 제네락 데이터센터용 비상발전기 수주잔고



자료: 제네락, IBK투자증권

표 1. 7월 이후 지엔씨에너지 수주 공시

번호	발주처	수주 시점	납품 시점	계약금액 (억원)	수전 량 (MW)	MW 당 수주금액	내용
1	KT	2026-07-31	2027-12-31	755	60	13	SGC AI Infra 군산 데이터센터 발전기
2	삼성물산	2026-07-15	2028-03-31	332	-	-	용인 덕성 AI 데이터센터 발전기
3	삼성물산	2026-07-30	2028-10-31	360	-	-	국가 AI 컴퓨팅센터
4	케이아이엔엑스	2026-08-03	2029-03-31	328	-	-	시흥 정왕동 데이터센터 가스터빈 발전기
5	삼성SDS	2026-07-02	2029-05-31	297	-	-	구미 AI 데이터센터 발전기
6	LG유플러스	2026-09-11	2028-09-30	469	-	-	파주센터4동 발전기
합산			2027E	755			
			2028E	1,160			
			2029E	626			
			합산	2,541			

자료: 지엔씨에너지, IBK투자증권, 주: 수전용량은 언론보도 종합, MW당 수주금액은 언론보도 수전용량을 계약금액으로 단순 나눈 값

Compliance Notice

동 자료에 게재된 내용들은 외부의 압력이나 부당한 간섭없이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여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동 자료는 기관투자가 또는 제3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동 자료는 조사분석자료 작성에 참여한 외부인(계열회사 및 그 임직원등)이 없습니다.

조사분석 담당자 및 배우자는 해당종목과 재산적 이해관계가 없습니다.

동 자료에 언급된 종목의 지분율 1%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당사는 상기 명시한 사항 외 고지해야 하는 특별한 이해관계가 없습니다.